

清代 披領의 조형적 특성

박헌정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전통패션문화전공 조교수

Formal Characteristics of Pi-Ling(披領) of Qing Dynasty

Hyun-Jung Park

Assistant Prof., Dept. of Traditional Fashion Culture, College of Culture & Tour, Jeonju University

(2005. 2. 2. 접수; 2. 25.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Pi-Ling by investigating the Pi-Ling(披領)'s system of Qing Dynasty. As a research document, Qing-Huidian-Tu(清會典圖) has been us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out in this research :

- 1) The form of Pi-Ling was horizontally wide and both sides were narrow and sharp. There was a circular hole in the center of Pi-Ling. It was worn around the neck by a button in its front center.
- 2) materials : The materials of Pi-Ling were the leather of marten(貂) or sea-lion(海龍), satins(縐緞, 倭緞), and silk(綢).
- 3) The color of Pi-Ling was purple or blue.
- 4) Moving dragons(行龍) were used on the pattern of Pi-Ling. And the Pi-Ling of low level officials had no patterns.

Key Words: Qing Dynasty(清朝), Pi-Ling(披領), system(제도), formal characteristics(조형적 특성)

I. 서론

복식사학은 복식 관련 사료 즉 문헌과 유물을 분석함으로써 과거 복식의 실체를 밝히고 변천과정과 변천의 원칙 등을 설명한다. 연구의 궁극적 의의는 인간의 중요 생활문화 영역인 복식문화를

통해 당시의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발굴된 복식의 실체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의 시대의상에서 정확하게 고증됨으로써 각 시대극 작품의 현실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디자이너의 아이템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패션디자이너들은 창조적 발상을 얻기 위해 자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의 민속 복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통 복식의 스타일, 소재, 색, 문양 등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대 아시아

북방 민족들에게서 시작되어 중국 본토에 보편화되었으며 청조에는 관복의 구성품목으로 제정된 披領의 제도와 조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清代 披領은 관복 중 朝服 전용으로 사용된 것¹⁾으로 帝后 百官 및 命婦들이 착용했던 일종의 領飾이다. 綢緞으로 만들며 모난(菱) 형태로 龍이나 蟒 문양을 수놓고 가장자리 緣飾이 있다. 보통 옷 위에 부착하며 앞트임이 있어 어깨 위에 걸쳐 목 아래에서 단추로 여미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清代 관복 중, 披領 제도 분석을 통해 피령의 조형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清代 披領의 조형성을 고찰하기 위해 청조 관복 제도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淸會典圖』²⁾를 주 자료로 분석하였으며, 『淸史稿』³⁾와 선행 연구 결과를 보조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관복에서 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연구내용과 절차는 淸朝 披領의 기원, 명칭, 완성된 관복제도에서의 신분과 등급에 따른 披領의 내용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형태, 소재, 색, 문양, 기타 세부장식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披領에 관한 면밀한 분석은 복식사학 입장에서 복식변천의 원칙을 설명할 수 있는 복식 아이템의 발견이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피령 고유의 조형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현대적 디자인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清代 披領의 기원과 명칭

1. 清代 披領의 기원

披領과 같이 어깨에 두르는 것을 지칭하는 보다 일반적인 명칭은 ‘披肩’, ‘雲肩’이다. 披肩은 어깨에 두른다는 뜻에서, 雲肩은 형태가 구름 모양이기 때문에 나온 명칭이며 五代 이전에는 주로 舞女나 樂伎들이 착용하였지만 五代 이후에는 민간에 보급되어 남녀 모두 착용하였다.⁴⁾

이는 유목민족 특유의 복식품으로 북방 이민족 왕조때 더욱 일반적으로 착용되었다. 遼나라 때는 ‘賈哈’이라고 하여 錦貂로 만들었으며 형태는 箕와 같고 양끝이 좁고 날카로운 형태이며 어깨와 등

에 돌렸다. 청대 披領은 그 유제를 승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

금나라의 귀족 부녀자들이 錦帛으로 만든 사각형 披肩을 착용하였는데 형태는 가운데에 둥근 목 파임이 있고 네 변은 雲文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정밀한 수가 놓여 있어 매우 화려하고 네 주위에는 술[流蘇]을 달기도 하였다. 후에 한족 부녀자들도 이를 ‘雲肩’이라 하여 착용하였다.⁷⁾ 원나라에서도 황제, 왕자, 처첩, 관리, 남자, 舞人, 처형하는 사람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雲肩을 착용하였다.⁸⁾

명나라때도 결혼식때 漢族 신부들이 ‘四合如意’ 형태의 운건을 착용하였다.⁹⁾

淸나라를 세운 滿族이 언제부터 披領을 착용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들은 본래 북방 한랭한 지역에서 騎射 생활을 하던 민족이므로 수렵한 포획물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皮衣)을 즐겨 입었다. 披領 역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 가죽을 어깨에 걸쳤던 것으로 滿族 고유의 전통 복식이었다. 淸朝의 전신인 後金이 세워지기 직전인 明 萬曆23년(1595), 만족 근거지였던 赫圖阿拉에 갔던 조선인 申忠一의 기록에 의하면 努爾哈赤와 그의 장수들이 貂皮로 만든 披領을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머리에 貂皮帽를 쓰고, 몸에는 五綵 龍文 天益을 입었다. 상의가 길어 무릎에 이르고 하상도 길이 발에 닿는다. 등에 貂皮를 대었으며 가장자리 緣飾이 있다.”¹⁰⁾

이와 같이 滿族 고유의 전통 복식인 披領은 努爾哈赤가 後金을 세운 후 가까운 친척이나 공훈자에 대한 주요 사여품목으로 사용되었다. 天命10년(1625) 정월, 努爾哈赤의 종실 형들이 元旦을 축하하러 왔을 때, 汗은 后妃로 하여금 예를 갖추게 하고 두 사람이 돌아갈 때 ‘錦綉披肩領’을 주었다.¹¹⁾ 天命11년(1626) 5월, 太祖는 來朝한 몽골 科爾沁部落의 台吉奧巴을 다른 나라의 貝勒長으로 여겨 貝勒들에게 영접하게 하고 繡披領을 사여하였으며¹²⁾ 외국에 출사하는 正副使를 책봉할 때에도 蟒緞披領을 주었다.¹³⁾

한편 努爾哈赤는 朝服을 사여하기도 하였는데 사여 대상자 신분에 따라 披領이 없는 조복을 주기도 하였다. 天命5년(1620) 2월, 몽골 齋賽의 아들 色特奇爾台吉을 돌려보낼 때 ‘無扇肩朝衣’¹⁴⁾를 주었

다. ‘扇肩’은 ‘披領’과 동의어로서 無扇肩朝衣란 披領이 없는 朝服을 말한다. 汗의 종실 형들에게는 披扇領, 몽골 인질이 돌아갈 때는 無扇肩朝衣을 준 것을 통해 披領은 고귀한 신분에 대한 예우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披領이 朝服의 구성품목으로 제도화된 것은 太宗때이다. 太宗 天聰6년(1632) 滿洲·蒙古·漢人 固山額眞이하 代子·章京·護軍 및 牛衆 이하 閒散富足之人이상에 대해 城에서는 披領袍를 착용하며 小袍 착용을 금지한다¹⁵⁾고 하였고 그 이듬해인 天聰7년(1633) 6월, 평상시에는 袍만 착용하고 朝期에는 披領을 갖추도록 규정되었다.¹⁶⁾

入關이전부터 예복으로 착용되었던 피령은 北京으로 수도를 정한 후에 제정된 『淸會典圖』에서 신분별 상세한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피령은 청대 말까지 皇帝·后妃·王公大臣·文武官員들의 朝服에 披領이 착용되었으며 <그림1>은 청대 초기 사전류에 보이는 披領이다.

2. 清代 披領의 명칭

청대 당시 피령 뿐만 아니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명칭들이 존재하였다. 청대 사전류에서 披領의 동의어가 발견되며 滿語로 기록된 사서의 번역본에서 ‘披領’ 번역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¹⁷⁾

太祖·太宗 당시의 사료인 『滿文老檔』에는 披領

관련 복식 용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滿文老檔』은 본래 滿文으로 기록된 것으로 일어와 중국어 번역본이 있는데, 天命5년 2월 기록의 경우, <표1>과 같이 披領 관련 용어의 번역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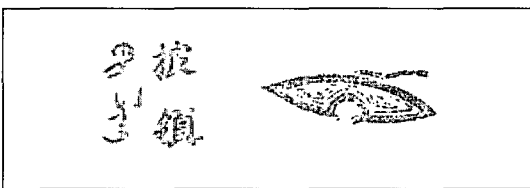
『滿文老檔』원문의 ‘goksi’를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無扇肩朝衣’,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披領’이라고 번역하였다.¹⁸⁾ <표2>는 이들의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청대 사전류를 통해 披領 관련 용어들을 비교한 것이다.¹⁹⁾

의복 위에 별도로 착용하는 領의 滿語는 ‘ulhun’이며, 청대 ‘披肩’·‘披領’·‘被當頭’·‘衣領’·‘領子’ 등으로 번역되었다. 또 만어로 ‘ilten’이라 하는 것은 ‘片金皮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披肩’으로, ‘扇肩’이라고도 하였다. 즉 披領과 扇肩은 같은 용도로 착용하는 것이며 장식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반면 만어로 ‘goksi’라는 것은 ‘無披肩朝服’ 또는 ‘無扇肩朝衣’라고 하여 披領류를 착용하지 않는 朝服을 말한다. 청대 朝服에는 披領을 착용하는 것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1>의 天命5년 2월 기록은 일본어 번역이 올바르고 중국어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대 披領과 동일한 의미의 명칭으로는 ‘披肩’·‘披領’·‘被當頭’·‘衣領’·‘領子’·‘扇肩’ 등이 있다.

Ⅲ. 清代 신분에 따른 披領 제도

披領은 朝服의 구성품목으로 황제부터 品官까지 朝服 착용자는 모두 朝服과 함께 披領을 착용한다. 그러나 신분에 따라 피령의 소재와 문양 뿐 아니라 착용 가능한 피령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었다. 淸朝 신분에 따른 披領 제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1> 披領 그림 『滿漢同文雜字』, p.23

<표1> 披領 관련 용어 번역의 차이(『滿文老檔』天命5년 2월)

滿語(원문)의 로마자 표기	日譯	漢譯
goksi	無扇肩朝衣	披領

<표2> 청대 사전들을 통한 披領 관련 용어 비교

『音漢淸文鑑』		『電腦處理 御製增訂淸文鑑(第6冊)』	
ulhun	披肩·披領·被當頭·衣領	ulhun	領子
ilten	披肩鑲의 片金皮子邊	ilten	扇肩
goksi	無披肩朝服	goksi	無扇肩朝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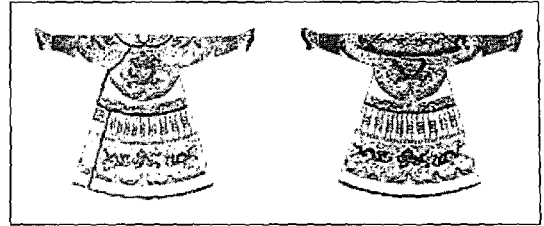
1. 皇帝·皇子·親王·郡王의 披領

皇帝와 皇子·親王·郡王은 朝服에는 등급의 차이가 있지만 披領은 동일하여 함께 착용하는 朝服에 따라 세가지 종류의 披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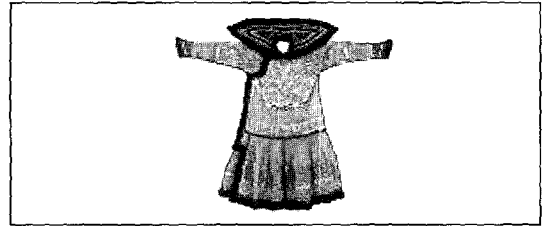
冬朝服1은 11월 초에서 정월 15일²⁰⁾까지 가장 추운 계절에 착용되는 것으로 朝服의 색은 본래 明黃色이나 園丘나 祈穀때는 藍色이다. 소매단에는 薰貂, 下裳의 아래부분과 披領의 겉면에는 紫貂를 대었다. 披領의 겉면에 동물 털이 노출되므로 문양은 없다.²¹⁾ (<그림3>참조)

冬朝服2는 9월 15-25일경부터 冬朝服2로 돌아오기 전까지 착용되는 것으로²²⁾ 본래는 明黃色이나 朝日에는 紅色이다. 冬朝服2와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 片金海龍緣을 대었다. 문양으로는 양쪽에 行龍 1마리씩을 수놓았다.²³⁾ <그림5>는 康熙帝의 朝日 朝服으로 紅色이며 披領은 石靑色에 片金海龍緣이 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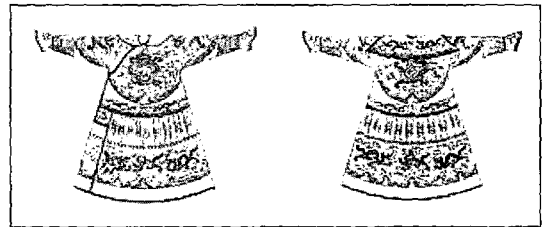
夏朝服은 매년 3월 15-25일경이 되면 착용하는 것으로²⁴⁾ 본래는 明黃色이나 常雩에는 藍色이고, 夕月에는 月白色이다. 夏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 片金緣을 대었다. 문양은 冬朝服2의 披領과 같이 양쪽에 行龍 1마리씩을 수놓았다.²⁵⁾ (<그림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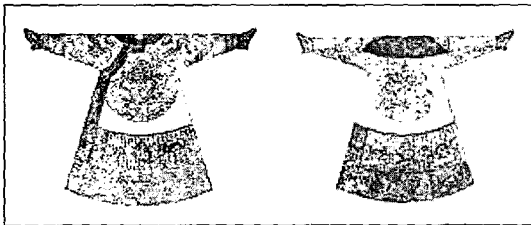
<그림4> 황제 冬朝服2와 披領 「清會典圖」



<그림5> 康熙帝 朝日 朝服 中華歷代服飾藝術, p.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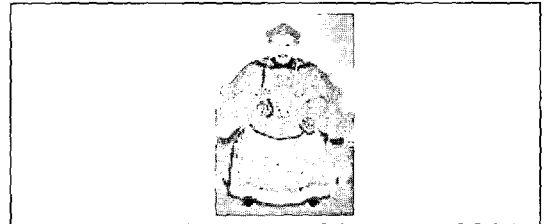
<그림6> 황제 夏朝服과 披領 「清會典圖」



<그림2> 皇帝의 冬朝服1과 披領 「清會典圖」



<그림3> 乾隆帝 冬朝服 中華歷代服飾藝術²⁶⁾, p.437



<그림7> 康熙帝 夏朝服 中華歷代服飾藝術, p.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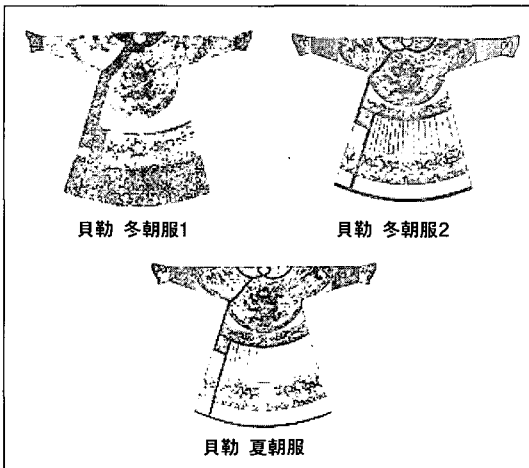
2. 貝勒·貝子·固倫額駙·鎮國公·輔國公·和碩額駙의 披領

貝勒·貝子·固倫額駙·鎮國公·輔國公·和碩額駙의 披領 역시 황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함께 착용하는 朝服에 따라 세가지 종류가 있다.

冬朝服1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겉에 紫貂를 대었다. 역시 피령의 겉면에 동물 털이 노출되므로 문양은 없다.²⁷⁾

冬朝服2와 함께 착용하는披領은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片金海龍緣을 대었다. 문양으로는貝勒이하는龍文이 아닌蟒文을 사용하여 양쪽에行蟒1마리씩을 수놓았다.²⁸⁾

夏朝服과 함께 착용하는披領은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片金緣을 대었다. 문양은冬朝服2의披領과 같이 양쪽에行蟒1마리씩을 수놓았다.²⁹⁾ (<그림8>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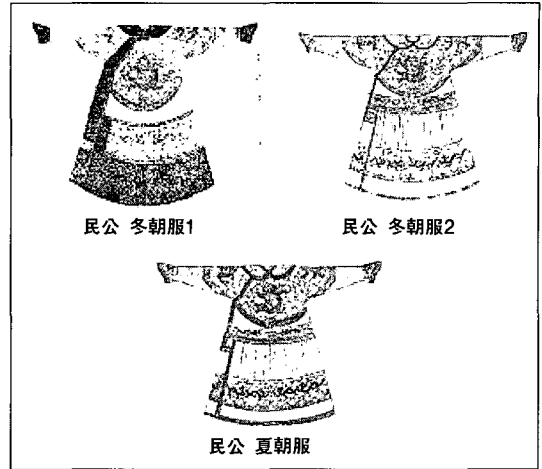
<그림8> 貝勒 朝服과 披領 「清會典圖」

3. 民公·侯伯이하 文武四品官·奉恩將軍·縣君額駙의 披領

이 경우는 신분에 따라披領이 세가지인 경우와 두가지인 경우로 나뉜다. 기본적으로는冬·夏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두가지 종류의披領이 있다.冬朝服과 함께 착용하는披領은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片金海龍緣을 대었다. 문양으로는貝勒이하는龍文이 아닌蟒文을 사용하여 양쪽에行蟒1마리씩을 수놓았다.³⁰⁾

夏朝服과 함께 착용하는披領은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片金緣을 대었다. 문양은冬朝服2의披領과 같이 양쪽에行蟒1마리씩을 수놓았다.³¹⁾

단, 民公·侯伯이하 文三品, 武二品官, 有職掌大臣, 輔國將軍, 縣主額駙, 男, 一等侍衛에 한해서는皇帝와 마찬가지로冬朝服이 두가지로 구분되어冬朝服1과 함께 착용하는披領은 겉에紫貂를 대었다. 역시 피령의 겉면에 동물 털이 노출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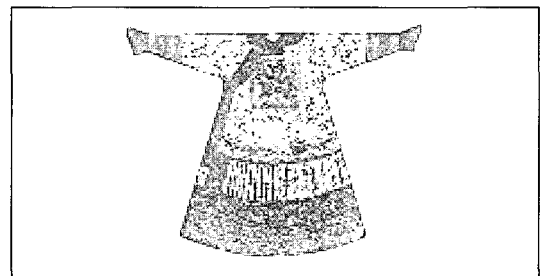
<그림9> 民公 朝服과 披領 「清會典圖」

문양은 없다.³²⁾ (<그림9>참조)

4. 二等侍衛·文武五六七品官·鄉君額駙·三等侍衛·藍翎侍衛의 披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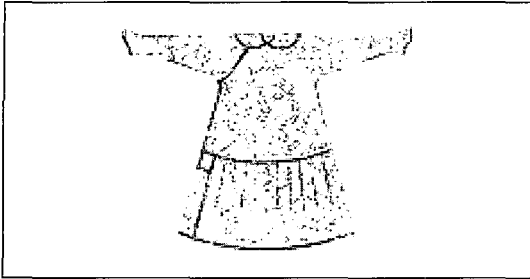
二等侍衛와 文武五六七品官·鄉君額駙, 또 三等侍衛·藍翎侍衛는 朝服에서는 등급의 차이가 있지만披領의 경우는 동일하다. 겨울과 여름 공용으로 착용하는 한 종류의披領이 있으며石靑色이고 소재는 韃緞을 사용하며, 문양에 대한 설명은 없다.³³⁾ (<그림10>참조)

5. 文武八九品, 未入流官의 披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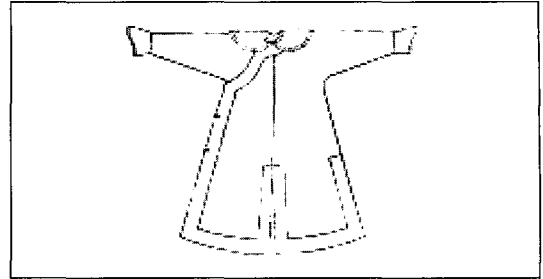


<그림10> 二等侍衛 朝服과 披領 「清會典圖」

文武八九品, 未入流官 역시 겨울과 여름 공용으로 착용하는 한 종류의朝服이 있다. 이朝服과 함께 착용하는披領은靑色 倭緞을 사용하며 문양은 없다.³⁴⁾ (<그림11>참조)



〈그림11〉 文八品官 朝服과 披領 「清會典圖」



〈그림12〉 舉人·貢生·監生·生員의 公服과 披領 「清會典圖」

6. 舉人·貢生·監生·生員의 披領

舉人·貢生·監生·生員의 경우는 朝服 대신 公服을 착용한다. 겨울과 여름 공용으로 착용하는 한 종류의 公服이 있으며 披領의 장식은 각 袍와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舉人·貢生·監生은 靑色 綢에 藍緣을 대었으며 生員은 靑色 綢에 藍靑緣을 대었다. 문양은 없다.³⁹⁾ (<그림12>참조)

이상의 신분에 따른 披領 제도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披領은 함께 착용하는 계절별 朝服의 구분에 따라 세가지 종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종류, 또는 한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다. 세가지 종류가 있는 경우는 겨울용과 여름용으로 구분되고 겨울용이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세 종류의 피령을 착용하는 신분은 皇帝, 皇子, 親王, 郡王, 貝勒, 貝子, 固倫額駙, 鎮國公, 輔國公, 和碩額駙, 民公, 侯伯이하 文三品, 武二品官, 有職掌大臣, 輔國將軍, 縣主額駙, 男, 一等侍衛 등이고, 두 종류의

피령을 착용하는 신분은 文武四品官, 奉恩將軍, 縣君額駙 등이며, 계절에 관계없이 한 종류의 피령을 착용하는 신분은 二三等侍衛, 藍翎侍衛, 鄉君額駙, 文武五六七品官, 文武八品官, 文武九品官, 未入流官, 舉人, 貢生, 監生, 生員 등이다.

동조복1용 披領은 표면 전체에 동물 털을 사용하여 문양이 없고 동조복2와 하조복에는 계절에 따라 소재의 차이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문양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으며 문양이 있는 경우에도 龍文과 蟒文의 차이가 있다. 기타 장식으로는 동조복2의 경우는 片金海龍緣 장식이 있고 하조복의 피령은 片金緣의 장식이 있다. 하조복은 소재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외 문양과 기타 장식 등은 동조복2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표3〉 清朝 신분에 따른 披領 제도

착용자	용도	색	소재	문양	기타장식
皇帝, 皇子, 親王, 郡王	동조복1	紫	貂	없음	
	동조복2	石靑	緞, 綢	行龍2	片金海龍緣
	하조복	石靑	紗	行龍2	片金緣
貝勒, 貝子, 固倫額駙, 鎮國公, 輔國公, 和碩額駙	동조복1	紫	貂	없음	
	동조복2	石靑	緞, 綢	行蟒2	片金海龍緣
	하조복	石靑	紗	行蟒2	片金緣
民公, 侯伯이하 文武四品官, 奉恩將軍, 縣君額駙	동조복1*	紫	貂	없음	
	동조복2	石靑	緞, 綢	行蟒2	片金海龍緣
	하조복	石靑	紗	行蟒2	片金緣
二三等侍衛, 藍翎侍衛, 鄉君額駙, 文武五六七品官	동하조복	石靑	粗緞	없음	
文武八品官, 文武九品官, 未入流官	동하조복	靑	倭緞	없음	
舉人, 貢生, 監生, 生員	동하조복	靑	綢	없음	藍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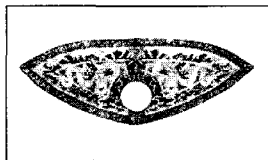
*표는 民公, 侯伯이하 文三品, 武二品官, 有職掌大臣, 輔國將軍, 縣主額駙, 男, 一等侍衛에 대해서만 해당됨

IV. 清代 披領의 조형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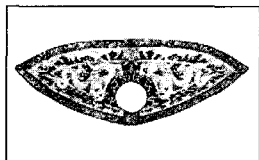
1. 형태

披領의 양식은 초기에는 크기가 크고 앞쪽 선이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었다.(<그림1>참조) 康熙 이전의 피령은 모두 뒤쪽이 견갑골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乾隆 이후 점차 작아졌으며 同治, 光緒 시대에는 점차 S자 곡선 모양이 되어 뒤쪽에서 보면 어깨부분을 겨우 덮는다.³⁶⁾

이러한 披領의 형태는 유물을 통해 관찰된다. 앞쪽이나 뒤쪽 곡선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 불룩한 곡선인 경우(<그림13>)와 S자형인 경우(<그림14>)가 있는데 모두 양옆으로 긴 형태이며 양쪽 옆은 좁고 날카롭다.³⁷⁾ 중앙에 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둥글게 구멍이 나 있으며 앞 중앙이 트여 있고 단추가 달려 있어 목 밑에서 여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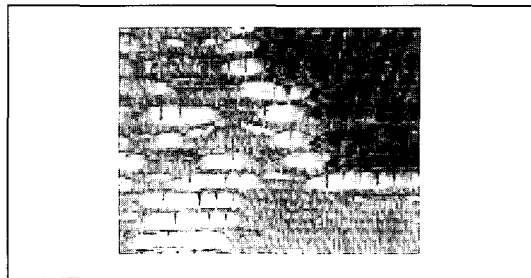
<그림13> 清朝 皇后 披領 「中國歷代服飾藝術」, p.470



<그림14> 披領 「中國衣服服飾大辭典」³⁸⁾

2. 소재

披領의 소재로는 貂, 樺緞, 倭緞, 縐 등이 사용되었다. 貂는 담비가죽이며 아주 추운 겨울용 朝服에 착용된 것이다. 披領뿐만 아니라 소매단과 下裳 아래단에도 동물의 털을 사용하였다. 樺緞이란 樺花緞과 같은 것으로 바닥조직은 緞이며 바닥조직을 이루는 지위사와는 별도로 문양이 필요한 부분에만 문위사를 넣어 부분적으로만 중조직으로 짜여진 직물을 말한다.³⁹⁾ 倭緞이란 첨모조직 혹은 파일조직으로 짠 絨緞직물이다.⁴⁰⁾ <그림15>는 織金 樺花緞의 부분 확대 사진이며 지위사보다 두꺼운 문위사를 볼 수 있다.



<그림15> 織金 樺花緞 부분. 한국직물오천년, p.267

3.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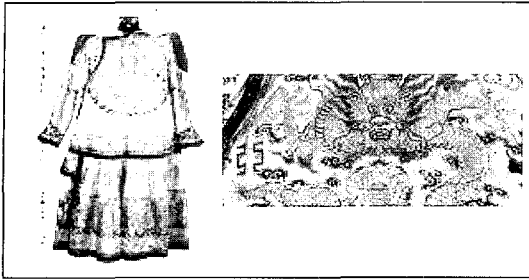
皇帝이하 和碩額駙까지는 紫色과 石青色, 民公이하 文武七品官까지는 石青色, 文武八品官에서 生員까지는 青色이다. 紫色은 담비가죽 표면의 털 색이므로 직물 소재로 만든 披領의 색은 모두 青色 계열인 것을 알 수 있다. 石青色은 紅靑의 간색으로 흑색과 가까운 색이며 청대 귀족의 禮服으로 전용되었던 색이다.⁴¹⁾

4.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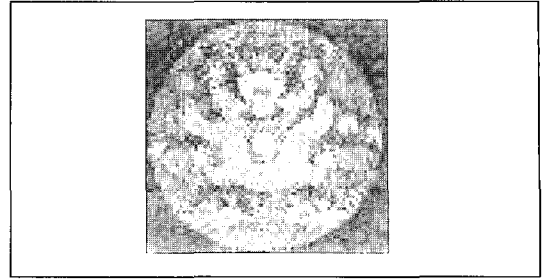
문양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으며 문양이 있는 경우에도 龍文과 蟒文의 차이가 있다. 龍文과 蟒文은 보통 正龍과 行龍, 正蟒과 行蟒의 구별이 있지만 披領에는 行龍과 行蟒 문양이 사용되었다. <그림16>은 皇帝의 朝服이며 가슴부분에 있는 龍文을 오른쪽에 있는 확대 그림에서 보면 五爪龍을 볼 수 있으며, <그림17>은 蟒文 朝服으로 역시 오른쪽 확대 그림에서 四爪, 蟒을 볼 수 있다.

龍과 蟒의 차이는 보통 龍은 발톱이 5개이고, 蟒은 龍과 유사한 형상이되 발톱이 4개인 것⁴²⁾⁴³⁾으로 구분하나, 貝勒 補服의 문양이 順治9년에는 四爪龍 補였다가 후에는 四爪正蟒 補로 된 것⁴⁴⁾, 貝勒이하 民公이상의 蟒袍 문양이 본래는 四爪 蟒文이지만 사여받은 경우에는 五爪 蟒文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⁴⁵⁾으로 보아 龍은 五爪, 蟒은 四爪라는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이 龍文과 蟒文에는 正과 行의 차이가 있다. 正龍과 行龍의 차이는 용을 그린 구도에 따른 것으로 正龍은 <그림18>과 같이 용 머리가 정면을 향하고 몸은 둥글게 휘어져 있으며 네 발이 상하좌우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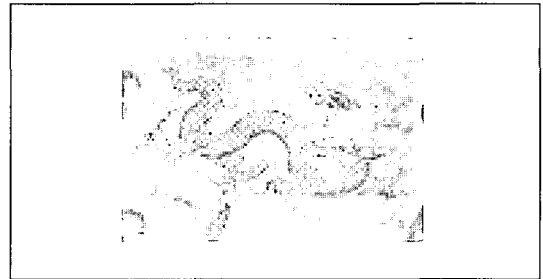
<그림16> 황제 龍文 朝服 衣袖展風情⁴⁶⁾, p.26



<그림18> 正龍 中國衣冠服飾大辭典, p.592



<그림17> 蟒文 朝服 中國歷代服飾⁴⁷⁾, p.275



<그림19> 行龍 中國衣冠服飾大辭典, p.592

씩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行龍은 <그림 19>와 같이 몸이 측면을 향하고 머리는 위를 향하고 있으며 꼬리를 세우고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⁴⁸⁾ 이 正과 行의 차이는 蟒文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청대 披領의 경우 皇帝이하 和碩額駙까지는 行龍, 民公이하 縣君額駙까지는 行蟒 문양이 좌우 양쪽에 1마리씩 있다. 二三等侍衛이하 生員까지의 披領에는 문양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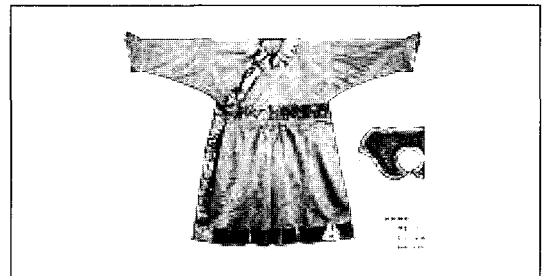
5. 기타 세부장식

披領의 기타 세부장식으로는 가장자리 선 장식이 있다. 皇帝이하 賢君額駙까지 冬朝服에는 片金海龍緣이 장식되어 있고 夏朝服에는 片金緣이 장식되어 있다. 海龍이란 수달을 말하며 털이 짧고 촘촘하여 옷이나 모자의 소재로 사용된다⁴⁹⁾. 즉 披領에 海龍緣이 있다는 것은 가장자리에 수달의 털을 붙인 것을 말한다. 또한 片金이란 '扁金'이라고도 한다. 織金공예 중 하나로서 羊皮나 종이면에 金箔을 입혀 가늘게 잘라 직물에 交織한다. 일반적으로 선명한 색(홍색, 녹색 등)과 함께 짜서 각종 정교한 문양을 만들어 호화롭고 아름다운 장식효과를 낸다. 대부분 귀족 복식에 사용되는 것으로⁵⁰⁾

<그림20>에서 民公의 조복에 片金緣이 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披領의 기타 세부장식으로는 가장자리 선 장식이 있다. 皇帝이하 賢君額駙까지 冬朝服에는 片金海龍緣이 장식되어 있고 夏朝服에는 片金緣이 장식되어 있다. 士庶들의 披領에는 藍緣이 장식되어 있다.

V. 요약 및 결론

清代 披領 제도 분석을 통해 피령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披領은 본래 북방 한랭한 지역에서 騎射 생활을 하던 滿族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 가죽을 어깨에 걸쳤던 것에서



<그림20> 民公 朝服 中國歷代服飾, p.275

비롯된 것으로 滿族 고유의 전통 복식이었다. 努爾哈赤가 後金을 세운 이후 공훈자에 대한 주요 사여 품목이었다가 天聰7년(1633)에 朝服의 구성 품목으로 제정된다.

신분에 따른 披領 제도를 정리하면 披領은 함께 착용하는 朝服의 구분에 따라 세가지 종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두가지 종류, 또는 한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다. 세가지 종류가 있는 경우는 겨울용과 여름용으로 구분되고 겨울용이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경우이다. 동조복1용 披領은 표면 전체에 동물 털을 사용하여 문양이 없고 동조복2와 하조복에는 계절에 따라 소재의 차이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문양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고 문양이 있는 경우에도 龍文과 蟒文의 차이가 있다. 기타 장식으로는 동조복2의 경우는 片金海龍緣 장식이 있고 하조복의 피령은 片金緣의 장식이 있다. 하조복은 소재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외 문양과 기타 장식 등은 동조복2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披領의 조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披領의 형태는 양옆으로 긴 형태이며 양쪽 옆은 좁고 날카롭다. 중앙에 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둥글게 구멍이 나 있으며 앞 중앙이 트여 있고 단추가 달려 있어 목 밑에서 여밀 수 있다. 둘째, 披領의 소재로는 貂, 絨緞, 倭緞, 綢 등이 사용되었다. 셋째, 披領의 색은 紫色, 石青色, 青色으로 담비 가죽의 털 색인 紫色을 제외하고는 모두 青色 계열이다. 넷째, 披領의 문양은 신분에 따라 문양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으며 문양이 있는 경우에도 龍文과 蟒文의 차이가 있어 行龍 문양과 行蟒 문양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세부장식으로는 披領의 가장자리선 장식이 있어 片金海龍緣, 片金緣, 藍緣 장식 등이 있다.

복식사학적 입장에서 清代 披領을 통해 용도변화 및 계급분화 등 복식의 변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披領은 본래 기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되었던 滿族의 전통복식이었지만 滿族이 清朝의 통치민족이 되면서 소재, 문양, 장식 등의 등급 구별을 통해 신분 상징성이 강한 전형적인 관복의 아이템이 되었다. 즉 신체보온이라는 실용적 기능에서 다양한 계급을 표현하는 신분상징의 기능으로 변화되면서 披領이라는 하나의 복식 아이템에는 일상복에서 관복으로의 착용 용도의 변화 및

엄격하고 세밀한 등급의 표현이라는 계급분화가 일어난 것이다.

참고문헌

- 1) 周汎, 高春明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p.239.
- 2) 清會典圖 (1899). 光緒25年. 北京: 中華書局. 1991影印本. 券57冠服1 - 券76冠服20.
- 3) 清史稿 (1977). 北京: 中華書局. 1994影印本. 卷102志77輿服1 - 卷103志78輿服2.
- 4) 周汎, 高春明 (1996). Op. cit., p.236.
- 5) 고대부터 明代까지 雲肩에 대한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김민지 (1994)가 발해 유물인 청동용의 복식을 기술하면서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김민지 (1994).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 (Ⅱ).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용을 중심으로. 복식 22, pp.105-114.
- 6) 周錫保 (1984).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pp.333-341.
- 7) 趙超, 熊存瑞 (1996). 衣冠燦爛-中國古代服飾巡禮. 成都: 四川教育出版社.
- 8) 김미자 (2003). 元의 雲肩에 관한 연구. 복식 53(2), p.134.
- 9) 周錫保 (1984). Op. cit., pp.333-341.
- 10) 申忠一, 「建州紀程圖記解說」, 「頭戴貂皮…身穿五綵龍文天益, 上長至膝, 下長之足, 背裁剪貂皮, 以爲緣飾」, p.27.
- 11) 『大清太祖高皇帝實錄』卷9 第8-9頁 天命10年春正月 庚戌朔 “上謂諸貝勒曰, 朕宗室中有兄二, 曰拜珠扈, 曰祐星阿, …然朕親敬之禮, …賜兩兄錦繡披領.”
- 12) 『大清太祖高皇帝實錄』卷10 第10-11頁 天命11年5月 丁巳 “上聞蒙古科爾沁部落台吉奧巴來朝. 以其爲異國貝勒長, 命三貝勒, 四貝勒, 及諸台吉等迎之. …上曰, 彼二部落, 原因貪得而來, 掠汝, 不待言也. 今爾我無恙得會, 足矣. 遂長筵大宴. 賜雕鞍竝馬·繡披領·鏤金帶·有頂冠各三.”
- 13) 清蕭爽 「永憲錄」卷1 “외국에 출사하는 正副使를 책봉할 때 蟒緞披領, 麒麟補長褂, 一品頂

帶를 주었다.”

- 14) 滿文老檔(漢譯), pp.131-132; 滿文老檔(日譯) I, p.212; 天命 5年 (1620) 2月 “(日譯) 齋賽의 아들 色特奇爾台吉을 보내 줄 때, 그에게 蟒緞 無扇肩朝衣 · 布衫 · 褲 · 靴 · 煖帽 · 腰帶를 모두 입히고, 汗의 鞍轡를 갖춘 말에 태워 보냈다.”
- 15)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12 第37-38頁 天聰6年 (1632) 12月 甲子朔 乙丑.
- 16)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14 第15-16頁 天聰7年 6月 己巳 “凡朝期俱用披領”.
- 17) 박현정 (2000). 중국 이민족 왕조의 복식정책 비교 - 북위와 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13.
- 18) 滿文老檔(漢譯) 上, p.131; 滿文老檔(日譯) I, p.212. 天命5年 (1620). 2月.
- 19) 청대 황제의 명에 의해 편찬된 만주어 사전류에는 『御製淸文鑑』 · 『音漢淸文鑑』 · 『御製增訂淸文鑑』 등이 있다. 『御製淸文鑑』은康熙47년 (1708)년에 간행된 초기 만주어 사전이고, 『音漢淸文鑑』은雍正13년(1735)에 『御製淸文鑑』의 명칭만 漢語로 번역한 것이며, 『御製增訂淸文鑑』은乾隆36년(1771)년에 간행된 『御製淸文鑑』의 증보판이다; 성백인 (1986). 初期 滿洲語 辭典들에 대하여. 東方學志 5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20) 中國歷代服飾藝術, p.435.
- 21) 淸會典圖 권57 皇帝 冬朝服1, “황제 동조복 색은 明黃이나 園丘, 祈穀때는 藍이다. 披領과 裳은 모두 겹에 紫貂를 대고, 소매단에는 薰貂를 댈다. 繡文은 양어깨와 전후에 正龍 각 1, 襲積에 行龍6이 있다. 衣 전후에 12章이 배열되어 있고 사이에 五色雲이 있다.”
- 22) 周錫保 (1984). Op. cit., p.461.
- 23) 淸會典圖 권57 皇帝 冬朝服2, “황제 동조복 색은 明黃이나 朝日에는 紅이다. 披領과 袖는 石靑이고, 片金海龍緣을 더한다. 繡文은 어깨와 전후에 正龍 각1, 허리에 行龍5, 衽에 正龍1, 襲積 전후에 團龍 각9, 裳에 正龍2, 行龍4, 披領에 行龍2, 소매단에 正龍 각1이 있다. 전후에 12章이 배열되어 있는데, 日 · 月 · 星辰 · 山 · 龍 · 華蟲 · 黼 · 黻은 衣에, 宗彝 · 藻 · 火 · 粉米는 裳에, 사이에 五色雲이 있다. 下幅에는 八寶平水 문양이 있다.”
- 24) 周錫保 (1984). Op. cit., p.461.
- 25) 淸會典圖 권57 皇帝 夏朝服, “황제 하조복 색은 明黃이나 常雩에는 藍이고, 夕月에는 月白이다. 披領과 袖는 石靑이고, 片金緣을 댈다. 緞, 紗, 纁, 겹은 시기에 따라 한다. 나머지는 동조복2와 같다.”
- 26) 黃能馥, 陳娟娟 (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北京: 中國旅遊出版社.
- 27) 淸會典圖 권62 貝勒 冬朝服1, “(貝子, 固倫額駙, 鎮國公, 輔國公, 和碩額駙 冬朝服 참고) 貝勒 冬朝服은 金黃색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외는 사용할 수 있다. 보통 蟒文은 四爪이며 나머지는 같다. 貝勒 冬朝服1은 貝子, 固倫額駙, 鎮國公, 輔國公, 和碩額駙 冬朝服과 같다.”
- 28) 淸會典圖 권62 貝勒 冬朝服2, “(貝子, 固倫額駙, 鎮國公, 輔國公, 和碩額駙 冬朝服 참고) 貝勒 冬朝服은 金黃色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외는 사용할 수 있다. 보통 蟒文은 四爪이며 나머지는 같다. 貝勒 冬朝服2는 貝子, 固倫額駙, 鎮國公, 輔國公, 和碩額駙 冬朝服과 같다.”
- 29) 淸會典圖 권62 貝勒 夏朝服, “(貝子, 固倫額駙, 鎮國公, 輔國公, 和碩額駙 夏朝服 참고) 貝勒 夏朝服은 金黃色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외는 사용할 수 있다. 보통 蟒文은 四爪이며 나머지는 같다. 貝勒 夏朝服은 貝子, 固倫額駙, 鎮國公, 輔國公, 和碩額駙 夏朝服과 같다.”
- 30) 淸會典圖 권64 民公 冬朝服2, “(侯伯이하 文武四品官, 奉恩將軍, 縣君額駙 冬朝服 참고) 民公 冬朝服은 藍과 石靑 諸色을 편의대로 한다. 披領과 袖에는 片金海龍緣을 댈다. 繡文은 양어깨, 전후에 正蟒 각1, 허리에 行蟒4가 있다. 가운데 襲積이 있고, 裳에 行蟒 8, 披領에 行蟒 2, 소매단(袖端)에 正蟒 각1이 있다. 아래쪽에 八寶平水 문양이 있다. 侯伯이하 文武四品官, 奉恩將軍, 縣君額駙 冬朝服도 같다.”
- 31) 淸會典圖 권64 民公 夏朝服, “(侯伯이하 文武四品官, 奉恩將軍, 縣君額駙 夏朝服 참고) 民公 夏朝服은 藍과 石靑 諸色을 편의대로 한다. 片金緣을 댈다. 나머지는 冬朝服2와 같다. 侯

伯이하 文武四品官, 奉恩將軍, 縣君額駙 夏朝服도 같다.”

32) 清會典圖 권64 民公 冬朝服1, “(侯伯이하 文三品, 武二品官, 有職掌大臣, 輔國將軍, 縣主額駙, 男, 一等待衛 冬朝服 참고) 民公 冬朝服은 藍과 石靑 諸色을 편의대로 한다. 披領과 裳 모두 길은 紫貂, 소매단(袖端)은 薰貂이다. 繡文은 양어깨, 전후에 正蟒 각1, 襞積에 行蟒4가 있다. 侯伯이하 文三品, 武二品官, 有職掌大臣, 輔國將軍, 縣主額駙, 男, 一等待衛 冬朝服도 같다.”

33) 清會典圖 권65 二等待衛 朝服, “二等待衛 朝服은 石靑색이고 翦絨緣을 낸다. 보통 길은 雲緞이다. 전후 方欄에 行蟒 각1이 있고, 허리에 行蟒 4가 있다. 가운데 襞積, 領袖가 모두 石靑 絳緞이다. 冬夏에 사용한다.”

34) 清會典圖 권66 文人品官 朝服, (式人品, 文式九品, 未入流官報服참고) 文人品官 朝服은 石靑 雲緞이다. 蟒은 없다. 清會典圖領袖 모두 靑 倭緞이다. 가운데 襞積이 있다. 冬夏에 사용한다. 武八品, 文武九品, 未入流官 朝服도 같다.”

35) 清會典圖 권66 舉人 公服 袍 “(貢生, 監生, 生員 公服 袍 참고) 舉人 公服 袍는 靑 綢로 만들고 藍緣을 낸다. 貢生, 監生 公服 袍도 같다. 生員 公服 袍는 藍靑緣이다. 披領 장식도 각 袍와 같다.”

36) 王智敏 (1994). 龍袍. 藝術圖書公司, p.111.

37) 周錫保 (1984). Op. cit.

38) 周汎, 高春明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39)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p.259.

40) 심연옥 (1998). 중국의 역대직물. 서울: 도서출판한림원, p.131.

41) 周汎, 高春明 (1996). Op. cit., p.551.

42) 元史. 卷78 志第28 輿服1 “服色等等…蒙古人不在禁限, …惟不許服龍鳳文. 龍謂五爪二角者.”(服色에 있어서 몽골인은 제한이 없다. 다만 龍鳳文은 사용할 수 없다. 龍이란 五爪二角을 가진 동물을 말한다).

43) 沈德符, 萬曆野獲編. 券2 補遺 “蟒衣爲象龍之服, 與至尊所御袍相蕭, 但減一爪耳”(蟒衣는 龍과 유사한 옷인데, 황제의 袍와 같을 것을 삼가 一爪를 뺀 것이다).

劉廷璣(清), 在園雜志. 券1 “衣服上所織四爪者謂之蟒, 民間通用五爪者謂之龍, 非奉欽賜 諸王賞 不得擅用, 此定例也.”(衣服에 四爪를 직조한 것을 蟒이라 한다. 민간에서 五爪인 것은 龍이라 한다. 帝王에게 사여된 것이 아니면 맘대로 착용할 수 없다. 이는 규정이다.); 周汎, 高春明 (1996). Op. cit., p.596.

44) 清史稿. 卷103 志78 輿服2 “貝勒, … 補服, 色用 石靑, 前後繡四爪正蟒各一團, 朝服通繡四爪蟒文, 蟒袍亦如之. 順治九年, 定…服用四爪兩團龍補”(貝勒, … 補服은 석청색이며 전후에 四爪正蟒 각 1개씩 수놓았다. 朝服은 보통 四爪蟒文을 수놓고, 蟒袍 역시 같다.… 順治9년 규정에는 服에 四爪兩團龍補를 하도록 하였었다).

45) 清會典圖. 卷73 冠服17 吉服3 “貝勒以下民公以上曾賜五爪蟒緞者亦得用之”.

46) 宋龍飛 主編 (1998). 衣袖展風情-清宮服飾之旅.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47) 周汎, 高春明 (1984). 中國歷代服飾. 上海: 學林出版社.

48) 周汎, 高春明 (1996). Op. cit., p.592.

49) 周汎, 高春明 (1996). Op. cit., p.544.

50) 周汎, 高春明 (1996). Op. cit., p.671.